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잔나비의 애처로운 새끼 사랑

청자상감모자원형연적 (靑瓷象嵌母子猿形硯滴)



국보 제270호 청자상감모자원형연적

한문불전의 구역(舊譯)을 대표하는 요진(姚秦)의 삼장법사(三藏法師)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경전 중에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이 있다. 간단히 <부모은중경>이라고 부르는 이 경전에는 다른 종교들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부모의 은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다. 가장 오래된 판본은 세종 14년(1432)에 태종의 후궁인 명빈 김씨에 의해 간행된 보물 제1125호(국립중앙박물관소장)와 제959호(기림사 비로자나불부장전적)가 있는데, 탁종이에 목판으로 찍은 점장본(병풍처럼 펼칠 수 있는 전적)이다. 이는 원문과 그림이 함께 있어 귀한 사료로 평가된다.

필자는 이 경전을 처음 접하고는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광대무변한지 깨달았다. 청소년들을 위한 초중고 계층을 위한 필수독서목록에 넣고 시험과목에 넣으면 우리 청소년들의 효양(孝養)교육에 더할 나위없는 광범위한 효과가 있을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역량 있는 귀인(貴人)이 나서서 시행해 주었으면 한다.

<부모은중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마른 뼈 한 무더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 예배를 올린 이야기가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예배에 제자들이 놀라 이유를 물었다. 석가모니는 "전생에 부모였던 이들의 뼈일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검고 가벼운 뼈는 여인의 뼈인데, 아이 하나를 낳을 때마다 서말 서되의 피를 흘리고, 기를 때마다 여덟달 너덧의 젖을 먹이기에 그렇다"고 말했다.

<부모은중경>의 여덟 번째 은혜에 원행억념은(遠行憶念恩)이라는 구절이 있다. 역마살이 심해서 워낙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필자의 마음에 꼭 들어서 저절로 외웠던 명문이다. 여러 가지 한글 번역이 있는데 아래의 번역이 워낙 탁월해서 본문의 의미를 충실히 명역이라 소개하고자 한다.

"멀리 떠나가면 근심 걱정하신 은혜 죽어 이별 진실로 잊기 어렵고 살아 이별 또한 가슴 아프도다. 자식이 외출하여 먼 곳에 나가면 아버지의 그 마음도 타향 땅에 함께 있도다. 밤이나 낮이나 자식 향한 마음으로 흘린 눈물 천만 줄기 잔나비 새끼 사랑에 애처러이 울부짖듯 행여나 염려하여 애간장이 끊기도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잔나비(원숭이의 별칭)와 새끼사랑에 애간장이 끊기는 이야기가 나온다. 옛날 어느 사냥꾼이 숲속에 사냥을 나갔다가

자식이 외출하면, 어버이 마음도 타향에 <부모은중경> 청소년의 효양교육에 효과

잔나비 새끼가 노는 것을 보고, 시장에 내다 팔 욕심으로 새끼를 데리고 숲을 나오는데, 어미 원숭이가 뒤를 따라오면서 슬피 울며, 새끼를 따라왔다. 몇 리를 따라오다가 소리가 그치기에 사냥꾼이 되돌아가서 보니, 어미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어있었다. 왜 죽었는지 궁금해서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겨 있었다 한다.

일제강점기 간송(簡松) 전형필(1906~1962)은 영국인 골동품 수집가 존 개즈비(John Gadsby)가 20년간 조선과 일본을 넘나들며 명품만을 골라 수집한 고려청자 20여 점을 일괄처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화들짝 놀란 간송은 일본으로 건너가 눈발 1만 마지기를 판 돈, 1200만원 상당의 돈을 지불하고 우리 청자를 되사들었다. 이때 사들인 청자 중에 후에 국보 제270호로 지정된 고려청자가 청자상감모자원형연적(靑瓷象嵌母子猿形硯滴)이다.

크기는 높이 9.8cm, 몸통 지름 6.0cm인데, 어미 원숭이가 머리 위에는 지름 1.0cm 정도의 물을 넣는 구멍이, 새끼의 머리 위에는 지름 0.3cm인 물을 버무려 따라내는 구멍이 각각 뚫려 있어 연적임을 알 수 있다. 이 연적으로 먹을 갈았던 고려의 선비는 도공(陶工)의 의도(意圖)를 짐작했을까.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畫) 읽기



구절초

마른바람 불면 나는 꽃을 피워야만 합니다. 허전한 당신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강상 조선 백암성총 선사외 '독서하는 학인들에게 보임(示讀書諸生)'

번뇌의 소용돌이를 없앴는가

Table with 2 columns listing poems and their authors, such as '淨掃心塵閉六窓' by 정소심진폐육창 and '晴對斷崖看好樹' by 정대단애간호수.

마음의 때 깨끗이 쓸고 육근의 문 닫고서 마침내 한입에 서강의 물 마시길 기약하네. 선정에 들은 다만 의심의 그물 제거하기 위함이었도들 배움에 먼저 아만의 깃대 꺾어야 하리

오직 시마만은 조복하지 못하였다네.

백암성총(栢庵性聰; 1631~1700) 스님은 51세 되던 해, 임자도에 표류한 배에 실려 있던 190여 권의 책을 15년에 걸쳐 5000개의 판목에 새겨 유포하는 등 조선 후기 교학 성행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 <치문경훈주>를 통해 학인을 위한 경책도 아끼지 아니 하였는데 위 시도 그러하다.



원법 스님(문헌사 중강 · 조계종 교수·사리)

범종 명가 성종사 국내 최대 1만관 대중 주조 성공

Advertisement for Sungjongsang featuring a large bell, a foundry scene, and a portrait of a man. Text includes '국내 최대종인 화천 세계평화의 종(37.5ton)이 성종사 기술진에 의해 성공리에 주조되었습니다' and '이 사람이!' with a testimonial.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사이트 : www.sungjongsang.co.kr / E-MAIL: sungjongsang@hotmail.com
◆ 대 표 : 범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